

■ (언론 동향) 2021.7.1. "농업경제신문" 보도

○ 생산비 절반 차지하는 사료값 올해 15% 인상?

- 정부 "최대한 지원하지만 가격 인상 막지 못할 것"

사료업체들이 이번달 중 배합사료 가격을 다시 한번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세제·금융 지원 조치에도 사료값 인상을 막기 어려울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.

국내 사료 업체들은 이번달 중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1kg 당 40~60원 추가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
사료 업체들은 올해 3월 농협이 1kg 당 42원, 일반 업체들(농협 제외) 1kg 48원 가량 평균적으로 인상했다. 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12년만에 폭등한 것에 따른 것이다.

실제로 주요 수입 곡물 가격은 올해 초 기준으로 옥수수 82%, 소맥 29%, 대두 70%, 원당 65% 등으로 지난해 대비 29~82% 상승했다.

동물 사료는 제품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원료값 비중이 85% 이상으로 매우 높다. 원료인 곡물가격이 오르면 제품값이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.

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"85% 원료값에서 수입 가격에 영향 받는 품목이 거의 95%"라며 "정부가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사료값 인상을 감액할 수 있어도 큰 흐름을 막기 못하는 상황"이라고 말했다.

농식품부 관계자는 "어제(30일) 기준 국제선물가격이 옥수수, 소맥이 12~15불 올랐고 대두 박 30불 급등했다"며 "지금 판매하는 사료는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 제조한거라 당장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"고 말했다.

축산 농가들은 주요곡물시세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사료업체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사료 가격이 더 올랐을 경우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.

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사료 업체와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.

<정지은 기자>